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조 추첨 불운 예선 '한 경기 더'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당초 추첨 결과와는 다르게 예선에서 한 경기를 더 치르게 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자신들의 실수로 지난 5일 열린 조 추첨에서 누락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팔레스타인을 기존 6개 조 중 두 조에 한 팀씩 배정하기로 했는데 25일 재추첨한 결과 UAE가 한국과 같은 E조에 편성됐기 때문이다. 결국 E조에는 한국을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5개국이 속하게 돼 한국은 예선에서 다른 조에 편성된 국가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뤄야 한다.

김학범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재추첨을 앞두고 "5팀과 한 조가 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지만 걱정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선수들 체력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예선을 통과해 16강이 겨루는 토너먼트에 진출해도 또, 그 이후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결승에 오를 경우, 조별리그 4경기 와 토너먼트 4경기 등 총 8경기를 치뤄야 한다. 게다가 새로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된 UAE는 중동의 강호란

점에서 더 약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한국 축구가 아시안게임과 유난히 인연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총 4차례 우승하며 이란과 함께 최다 우승국에 올라있지만 원정에서 유난히 약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970년과 1978년, 1986년,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1986년은 서울, 2014년은 인천등 안방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었다. 1970년과 1978년은 원정 우승을 차지했지만 1970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는 미얀마(당시 버마)와 공동우승이고, 1978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도 북한과 공동우승을 차지한 것이었다. 원정 단독 우승을 차지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이다.

이런 징크스에 예선전 한 경기 추가까지, 한국 축구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안게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은 8월 12일 바레인과 1차전을 치른다. 15일 UAE전, 17일 말레이시아전, 20일 키르기스스탄전을 벌인다. 23일부터 9월1일까지 16강~결승전을 소화한다.

오승환, '콜로라도'로 이적 ... '투수들의 무덤' 입성

오승환이 콜로라도 유니폼으로 갈아 입는다. 메이저 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지난 25일 콜로라도가 오승환의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오승환의 이적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앞둔 구단 가운데 계투진 보강을 위해 매력적인 카드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오승환은 지난해까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다 시즌 종료 후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토론토와 1+1 계약에 성공했다.

오승환은 올 시즌 4승 3패 2세이브를 거뒀다. 평균 자책점은 2.68. 47이닝 동안 삼진 55개를 잡았고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 1.00의 좋은 성적을 냈다.

콜로라도의 홈그라운드인 쿠퍼스 필드. 팬들에게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발 1,601m의 고지대에 위치한 쿠퍼스필드는 공기 밀도가 낮아 장타가

많이 나온다. 이는 거꾸로 뜬공보다 땅볼을 많이 유도해야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콜로라도 투수진의 홈경기 평균자책점은 5.46에 이른다. 이는 원정 평균자책점 4.09에 비해 1.37이나 높은 수치다.

콜로라도는 지난해 87승75패를 거두며 와일드카드로 포스트시즌에 나갔다. 2009년 이후 8년만의 가을 야구였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패하며 한 경기 만에 짧게 끝난 포스트시즌이었지만 가능성을 봤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LA 다저스를 2.5경기차를 추격중인 콜로라도는 오승환을 영입하면서 계투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콜로라도는 류현진의 소속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속해 있다. 이런 이유로 복귀 후 불펜행이 유력한 류현진과 불펜 맞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재미교포 김서인, 몰타 프리미어 리그 진출



재미교포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김서인(23)이 몰타 프리미어 리그(1부 리그) 무대에 진출했다.

지난 27일 '골닷컴'에 따르면 몰타 프리미어 리그 구단 트오르미 FC는 25일 올여름 UCSB 타바바라이하 UCSB)를 졸업한 김서인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의 계약 기간은 기본 1년에 내년 여름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연장 옵션이 달린 조건이다. 이미 트오르미 프리시즌 캠프에 합류한 김서인은 내달 16일 센글레아 애슬레틱을 상대로 몰타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에서 데뷔한다.

북미 프로축구(MLS) 구단 스포르팅 캔자스 유소년 아카데미를 통해 성장한 김서인은 듀크대를 거쳐 미국 대학축구리그에서 가장 많은 평균 관중수를 자랑하는 UCSB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기대를 받았다. 그는 올해 졸업 후 MLS의 올랜도 시티 FC에 입단했으나 그동안 구단이 운영해온 23세 이하 팀(2군)이 갑작스럽게 해체돼 꾸준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없게 되자 해외 진출을 택했다.

김서인은 최근 한국이 포항 스틸러스 입단 테스트 기회를 잡기도 했지만, 트오르미에서 먼저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제안을 하며 K리그 진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몰타는 유럽에서 축구 변방으로 평가받는 곳이지만 김서인은 트오르미 이적이 확정된 후 "드디어 프로 선수가 됐다는 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몰타 리그는 각 팀당 외국인 선수 7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대다수 외국인 선수는 1~2년간 가능성을 입증해 더 큰 무대 진출을 노리는 브라질, 체코, 세르비아, 이탈리아 출신이다."라며 "어디서 시작해도 강한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프로 진출의 각오를 드러냈다.



스마트한 기능성 섬유 향수 **hook**

LIFESTYLE FRAGRANCE

99% 향균/탈취효과로 후각을 괴롭히는 섬유나 신발, 공기중의 오염된 냄새를 제거하고 은은하고 독특한 향 그대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섬유향수!

섬유용

차량용

신발용

애완 동물용

헤어용

출시 3개월만에 한국 유명백화점, 디자인샵, 면세점등 입점 완료!!

지구촌약국 EARTH VILLAGE PHARMACY

구입처 **714.228.9212**

5161 Beach Blvd. #C
Buena Park, CA 90621

젬젬

949.250.9500

*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hook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